coupang newsroom

“아따~ 서울을 뭣 하러 올라가?” 광주첨단물류센터 청년 직원 3인 이야기

2025. 9. 16.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일,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그런 경향이 짙지요. 하지만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에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며, 고향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세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광주첨단물류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곳으로, 어느덧 호남권 로켓배송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신규 고용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청년 3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마현빈 님

“저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쭉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죠.

쿠팡에서 일해보니 체계적이고, 워라밸도 좋고, 일도 재밌더라고요. 연차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근무시간도 잘 지켜지고. ‘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일자리가 있었구나 (생각했죠).

쿠팡에서 오래 일하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집도 사고, 여자친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도 생겼어요.” - CFS 마현빈 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배희재 님

“일자리가 없으니 결국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월세며, 생활비며, 돈은 안 모이고

어느 날, 쿠팡 광주첨단풀필먼트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서울 생활을 접고 광주로 내려왔죠.

서울보다 돈도 더 잘 모이고 삶도 훨씬 여유로워졌죠. 제 고향에서, 그리고 쿠팡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요." - CFS 배희재 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최진선 님

"시험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어요. 내가 과연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처음엔 (쿠팡 풀필먼트센터 일을) 단기직으로 시작했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일이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제 자신감을 되찾아준 쿠팡! 여기서 승진도 하고 커리어를 더 키워 갈 거예요." - CFS 최진선 님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곳,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히는 곳, 매일 더 성장할 수 있는 곳. 모두 쿠팡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고향을 지키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쿠팡은 늘 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